

81-2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지, 원자가 영영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을 이루고 있던 원자들은 그가 죽을 때 해체되어 개별 원자들로 돌아간 다음, 소멸하지 않고, 다른 원자들과 다시 우연히 결합하여 또 어떤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이루게 됩니다.

81-4

플라톤에 따르면 죽음 이후 인간의 영혼은 감각 기관이 아닌 '이성'으로 진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순수한 진리, 즉 이데아는 오직 이성으로만 인식이 가능한 '가시적'인 것이지, 눈 같은 감각 기관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6 수능특강 31쪽

이데아: 사물이나 존재의 본모습 또는 참모습. 완전하고 이성적인 원형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

81-10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인간의 육체가 아닌, 오직 영혼만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봅니다.

82-2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어떤 경우에도 고통이 될 수 없지만, 죽음에 대한 (헛된) 공포는 인간의 마음에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82-6

석가모니에 따르면 애초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기설에서 비롯되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에 적용되는 근본 진리입니다(1단원 파이널 자료 6쪽 3. 불교의 '인연생기설(연기설)' 참고). 오히려 석가모니는 연기설에 따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고정불변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음을 깨달

아야 해탈하고 죽음의 굴레(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8쪽 1번 문항

ㄹ. 석가모니는 불변의 실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82-7

에피쿠로스는 애초에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82-10

하이데거는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죽음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해서 생명의 유한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유한성이란 생명이 무한정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 즉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생명의 유한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83-2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이미 고통스럽지 않으므로, 죽게 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26 수능특강 37쪽 2번 문항

에피쿠로스 제시문 中: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죽게 된다는 예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헛소리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닥쳐 왔을 때 고통스럽지 않은데도 죽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헛되기 때문이다.

83-5

장자는 내생과 내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83-7

석가모니와 달리 장자는 업의 결과로 삶이 반복되고 순환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가 사상이 장자도 석가모니와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순환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업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반복되고 순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직 불교 사상이 석가모니 뿐입니다.

83-8, 83-9

공자는 내생과 내세를 주장하지 않고, 영생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공자에 따르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삶, 즉 현생과 현세에 집중해야 합니다.

84-4

공자에 따르면 예란 사치스럽기보다는 검소한 것입니다. 즉 공자가 보기에 인간의 죽음에 대해 예를 갖추어 애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치스러운 과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13쪽 8번 문항

문제분석 中 : 그(공자)는 죽음을 대할 때도 예를 갖추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예를 사치스럽지 않은 애도의 과정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84-5

공자에 따르면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자 동시에 마땅히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84-7

장자는 태어나는 일과 죽는 일 모두 도의 작용에 따라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태어나는 일과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완성 18쪽 <자료와 친해지기>

해설 中 : 장자는 태어남과 죽음이 도의 작용에 따라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았다. 이에 태어남을 기뻐하거나 음을 슬퍼하지 말고, 태어남과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85-3

하이데거는 생명체 중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본래적 자아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모든 생명체가 본래적 자아를 깨달아야 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8쪽 4번 문항

ㄱ. 하이데거는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현존재로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본래적 자아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85-9

해당 선지의 경우 ‘감각을 통해 얻은 순수한 진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81-4 해설 참고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9쪽 9번 문항

② 플라톤은 이데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감각 능력이 아니라 이성적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85-10

플라톤에 따르면 죽음으로 인해 인간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속하는 감옥인 육체만이 소멸하게 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86-2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즉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 육체가 소멸하고, 영혼은 육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때) 진리에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86-3

플라톤과 에피쿠로스 모두 인간이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87-4

85-3 해설 참고

87-5

플라톤에 따르면 현세에서는 사물의 본모습, 즉 사물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물의 본모습은 감각이 아니라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81-4 해설 참고

87-10

플라톤에 따르면 최고로 완전한 인식(이데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감각이 이성의 인도를 따랐을 때가 아니라, 감각의 구속 없이 이성만으로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88-8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현자는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죽음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현자가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더라도’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생운 선지들 중에는 종종 ‘반쪽짜리’ 선지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선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말 그대로 절반만 옳고, 절반은 틀린 그런 선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절반만 옳고 절반은 틀렸으면, 그 선지는 결과적으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어쨌든 절반은 틀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23 수능 6번 문항 1번 선지를 예시로 들어 볼까요?
플라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의연히 받

아들이다. (X)

물론 플라톤은 지혜로운 사람이 죽기를 주저하지 않고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보지요.

이런 식으로, 앞 혹은 뒤에(이 경우는 뒤이지요) 옳은 말을 써 놓고, 반대로 뒤 혹은 앞에는 틀린 말을 은근슬쩍 끼워넣어 선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심합시다. 어떤 선지가 옳은 선지가 되려면, 그 선지는 모두 맞는 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비록 아주 일부라도 개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 선지는 그냥 개소리 선지가 되는 겁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11쪽 2번 문항

⑤ 플라톤과 에피쿠로스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88-10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진실로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악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사조에 속하므로,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쾌락이 선, 고통이 악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 죽음이 악이라면 죽음이 고통이어야 하는데,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인간에게 죽음은 고통일 수 없지요. 인간이 살아 있을 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는 이미 인간의 감각이 소멸하여 아무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간에게 쾌락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 죽음은 선도 악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89-2

첫째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사조에 속하므로, 쾌락이 곧 최고의 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쾌락에서 선을 찾지 않습니다. 둘째,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마음의 불안과 혼란을 제거하고, 정신적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참고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것과, 정신적 쾌락을 통해 죽음의 고통을 잊는 것과, 죽음 이후 정신적 쾌락을 얻게 되는 것은 모두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만 옳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 헛소리이지요. 설마 아직도 ‘죽음’, ‘정신적 쾌락’... 선지를 이렇게 키워드로 분할해서 읽어 내는 분은 안 계시지요?

우리는 반드시 선지 ‘자체’를 독해해야 합니다. 문장 ‘전체’를 읽어야 하고요.

89-4

장자에 따르면 도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無古無今/ 無始無終. (도에는)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으며 /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였으며, 절대 끝나는 법이 없고 무한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의 경우 ‘도에 시작과 끝이 존재하듯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89-6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인간이 죽는 순간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이루고 있던 모든 원자가 해체되고, 인간은 죽음 이후 완전히 소멸하게 되며, 따라서 죽음 이후에는 쾌락이든 고통이든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89-9

에피쿠로스에게는 애초에 죽음이 악이 아니지요. 88-10 해설 참고

89-10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죽음의 가능성, 즉 가사성은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춘 자는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얻게 되며, 그럼으로써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가능성조차 그에게는 즐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90-3

플라톤에 따르면 죽음은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는 기꺼이 죽는 연습(죽음 이후 이데아를 인식하기 위해 영혼을 최대한 순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한 희망(죽음 이후 순수한 진리를 인식하게 될 것에 대한 희망)을 품을 것이라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50쪽 8번 문항

문제분석 中 : 그(플라톤)는 철학자란 죽음이 왔을 때 기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90-4

플라톤에 따르면 죽음은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되어 불멸하는 계기가 아니라,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불멸하는 계기가 됩니다.

90-6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타인과의 활발한 교섭의 가능성을 앗아가는 ‘몰교섭’적인 가능성, 즉 죽음의 가능성을 통해서도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타인과의 활발한 교섭을 통해서만’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90-8

석가모니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을 이루고 있던 오온이 해체되는 현상입니다. 동시에 괴로움, 즉 고통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 고통으로 생로병사(살아감, 늙어감, 병듦, 죽음)을 듭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의 경우 괴로움이 아니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90-10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죽음의 순간에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개별 원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영혼과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91-2

석가모니는 오온이 해체된다고 해서, 즉 인간이 죽음에 이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열반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죽음의 순간이 와서 오온이 해체되더라도 결국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될 뿐입니다(아직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91-5

장자에 따르면 죽음은 누구나 겪게 되는 필연적 현상이지만, 죽음이 삶과 단절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자는 삶과 죽음 둘 다 자연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며,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순환 과정의 일부라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4쪽 3번 문항

ㄴ. 장자는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91-6

공자는 죽음이 도덕적 완성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자에 따르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선비는 인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자 합니다[殺身成仁]. 이 경우 죽음은 도덕적 완성의 과정이 됩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4쪽 3번 문항

ㄷ. 공자는 인(仁)을 갖춘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으로써 도덕적 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았다.

91-9, 91-10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은 인간사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신은 그저 신으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그렇기 때문에 신의 필연적 의지나 운명 같은 것을 믿지 않으며,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자의 '우연적' 결합

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50쪽 8번 문항

④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유일신의 의지가 반영된 필연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고, 삶과 죽음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한다고 보지도 않았다.

⑤ 에피쿠로스는 신이 인간의 삶을 심판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지 않았다.

92-1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인간이 죽는 순간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이루고 있던 모든 원자가 해체되고, 인간은 죽음 이후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 죽음 이후의 삶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92-6

칸트는 애초에 동물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레건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것이 유용성에 따른 것은 아니고, 레건은 일부 동물의 경우 삶을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주체이므로 그들에게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92-9

싱어는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것이 바로 칸트의 주장이자, 칸트가 제시하는 동물 학대 금지의 '간접적 의무' 개념이지요)은 여전히 중 차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싱어에게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동물의 고통을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체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24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

싱어 제시문: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

적으로 종 차별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92-10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로, 어떤 존재가 비이성적인 동물이라면 그 존재를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불필요하게 그 존재에게 고통을 주거나 가혹하게 학대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없지만 동물 학대 금지의 간접적 의무가 있으므로).

93-1

사유는 이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사유 능력이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유 능력과 단순히 무언가를 의식하고 생각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사유 능력은 고차원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레건은 사유 능력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컨대 이성이 없어서 사유 능력 역시 없는 동물들 중에도 일부 동물들은 스스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93-6

싱어에 따르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한다면,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언제나 어떤 고통도 주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94-1

싱어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존재의 고통을 반드시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보다 우월하게 취급하거나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싱어에 따르면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동일한 고통은 언제나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각 존재가 상이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성적 능력의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쾌락과 고통의 크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94-2

코헨은 동물이 도덕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고, 따라서 동물은 어떠한 도덕적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코헨 역시 동물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따라서 이익과 손해를 가질 수 있음은 인정을 합니다(이는 싱어와의 공통점입니다).

94-4

애초에 도덕적 자율성은 유일하게 도덕적 행위 주체인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코헨과 달리,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로서,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닌 일부 동물 역시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코헨과 달리 레건은 어떤 존재가 권리를 지니기 위해 그 존재가 반드시 도덕적 자율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94-8

칸트에 따르면 동물 역시 인간의 의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관련하여 동물 학대 금지의 간접적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 동물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아닙니다. 칸트는 엄연히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이므로, 인간만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의 경우, 오직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만이 인간의 의무와 관련될 수 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44쪽 <자료 플러스>

해설: 칸트는 인간이 무생물인 광물이나 생명이 있는 식물,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함부로 다루는 인간의 행위가 인간성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94-10

93-1 해설 참고

95-3

레건과 싱어 모두 인간과 동물이 항상 동일한 이익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컨대 인간에게는 라면 한 그릇과 지폐 한 장이 이익이 되지만, 그것이 동물들에게도 이익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5-5

벤담은 애초에 도덕적 행위 능력이 도덕적 존중을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벤담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 능력이나 이성이 없더라도, 즉 인간이 아니라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됩니다.

26 수능특강 43쪽 <자료 플러스>

벤담 자료: 어떤 특징으로 인간과 다른 동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성 능력인가? 혹은 담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에 비해 합리적이며, 우리와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설령 그들의 능력이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95-8

벤담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실험 대상이 되

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로, 만약 어떤 실험을 통해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면, 그 실험을 허용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14쪽 6번 문항

④ 벤담은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실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96-7

동물이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직 데카르트뿐입니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 중에서도 데카르트만의 고유한 사상입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15쪽 3번 문항

나.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싱어와 달리 동물을 자동인형 혹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96-10

칸트와 레건 모두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라면 그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존재를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칸트의 경우 그 범위가 인간까지인 것이며, 레건의 경우 그 범위가 인간과 동물까지인 것입니다.

97-2

레건에 따르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일부 동물(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물)만이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목표와 희망을 가집니다.

97-7, 98-1

레건에 따르면 동물이 어떤 판단 능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레건은 일부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의식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이는 칸트와의 차이점입니다).

26 수능완성 26쪽 <자료와 친해지기>

레건 자료 : 칸트가 “동물은 자기의식이 없다.”라고 주장 하는데, 이는 실수이다. 앞에서 우리는 동물이 자기의식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논의를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해석에 따르면 개, 그리고 개와 유사한 동물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어떤 것을 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a) 뼈에 대한 (심지어 우리가 갖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b) 어떤 상황에서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저것은 뼈이다.”라고 판단할 수(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동물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이다. …(중략)…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동물을 직접적인 도덕적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해설 : 레건은 동물이 ‘자기의식’을 결여하고 있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칸트의 주장은 오류라고 보았다. 또한 레건은 동물이 도덕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도덕적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보았다.

서 그들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인간 종에 속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출처

98-7

싱어와 코헨 모두 이성을 지닌 존재, 즉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비단 싱어와 코헨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입니다.

98-8

싱어 역시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43쪽 <자료 플러스>

싱어 자료 中 :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거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거기에서 고려해야 할 바는 아무것도 없다.

98-2

레건과 달리 칸트는 애초에 동물은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98-4

레건과 칸트 모두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목적 자체인 존재들로 한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레건의 경우 그 범위가 인간과 동물까지라면, 칸트의 경우 그 범위가 오직 인간까지인 것입니다.

98-5

코헨에 따르면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종’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인간 종에 속하느냐, 아니면 애초에 도덕 무능력자인 비인간 종에 속하느냐인 것입니다(그래서 싱어가 코헨을 종 차별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헨의 입장에서 도덕 능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질병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라고 해

99-7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동식물이 모두 인간과 달리 사고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각 능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동식물이 감각 능력과 사고 능력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99-9

싱어는 인간과 동물 간의 호혜적 의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호혜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싱어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가가 애초에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라고 봅니다. 즉 그 누구도 인간과 동물 간의 호혜적 의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100-1

프롬에 따르면 사랑의 문제는 사랑할 대상을 찾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에 따르면 사랑은 마치 삶처럼 노력과 훈련을 통해 개발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며, 적절한 대상을 찾으면 절로 사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26 수능완성 33쪽 <자료와 친해지기>

프롬 자료 中: 그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믿고 있다. ... (중략) ... 사랑은 활동이며 영혼의 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지 올바른 대상만을 찾아내는 것만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그 밖의 일은 모두 저절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태도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도 기술은 배우지 않고, 올바른 대상만을 고르면서 대상만 찾아내면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에 비유할 수 있다.

24 9월 모의평가 12번 문항

프롬 제시문 中: 단지 적절한 사랑의 대상을 찾기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네.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채 좋은 대상을 고르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지 않는 것과 같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는 법이네. 사랑도 그렇다네. 우선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네.

100-3

첫째로, 애초에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 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자식이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유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사랑, 즉 효야말로 인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이란 준비친소에 기반한 차별적 사랑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 나와 가장 친한(가까운) 사람은 부모여서, 결국 인은 부모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약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할 경우, 인의 출발 자체가 막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적어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만 큰 도덕적 올바름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보다 부모와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자식은 부모에게 간언(쓴소리)을 할 때도 반드시 부모의 낯빛과 의중을 살피 가며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완성 35쪽 1번 문항

ㄴ. 유교: 자녀는 부모가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한다면 부모와의 혈연관계를 끊어야 한다. (X)

100-7

보부아르에 따르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다움은 여성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의 본성이라고 주입한 내용에 따라 규정됩니다. 보부아르는 애초에 여성이 타고나는 여성의 본성, 선천적인 여성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직 사회에서 강제로 주입한 사회문화적 산물로서의 여성성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100-8

보부아르에 따르면, 실제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하기는 해도 본질적인 차이(혹은 본성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마치 여성과 남성 사이에 극복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식됩니다(정확하게는 사회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주입합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13쪽 3번 문항

⑤ 보부아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100-9

프롬에 따르면 참된 사랑은 서로의 개성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통합성을 보전하고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간의 합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26 수능특강 51쪽 <자료 플러스>

프롬 자료 中: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100-10

프롬에 따르면 참된 사랑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존경'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존경의 특성을 두고 '자유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존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13쪽 4번 문항

⑤ 프롬에 따르면 존경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롬은 A에게 이성 간의 교제에는 자유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는 존경이 있어야 함을 명심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101-9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13쪽 4번 문항

문제분석 中 : 프롬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성격을 지니며 보호, 존경, 책임, 이해(지식)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01-10

프롬은 타인과 융합되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갈망이라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51쪽 <자료 플러스>

프롬 자료 中 : 인간과의 융합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갈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집단을, 가족을, 사회를 결합하는 힘이다. 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발광 또는 자기 파괴, 타인 파괴가 일어난다.

102-1

프롬에 따르면 사랑 없이는 인간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26 수능특강 51쪽 <자료 플러스>

프롬 자료 中 :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데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즉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곧 인간을 동료에게서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 버리는 힘, 인간을 타인과 결합하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102-6

보부아르에 따르면 여성은 본질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자 하는 주체의 기본적인 욕구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그러한 욕구와, 반대로 여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회적인 요청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부아르에 따르면 실존적 존재가 자기를 타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확립하고자 하는 욕구는 말 그대로 모든 실존적 존재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26 수능특강 52쪽 <자료 플러스>

보부아르 자료 : 여자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남자들이 여자로 하여금 타자로서 살도록 강제하는 세계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여자의 비극이란, 부단히 본질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모든 주체의 기본적인 욕구와 여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의 요청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102-9

유교에 따르면 부부 관계가 인륜의 시작인 것은 맞지만, 부부 관계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음의 일이라고 봅니다.

21 9월 모의평가 5번 문항

유교 제시문 中 : 그러므로 군자는 혼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과정에서 남녀는 서로 경건하고 존중하며 정직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친밀한 사랑이 생긴다. 이것이 예(禮)의 본질이다.

102-10

프롬에 따르면 참된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이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통합성을 보전하고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00-9 해설 참고

103-2

프롬에 따르면 성숙한 사랑은 각자의 개성과 통합성을 보전하고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가 되는 합일을 지향합니다. 100-9 해설 참고

103-9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모두 성적 행위가 가치 판단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때 성적 행위가 가치 판단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어떤 성적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허용되거나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중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모두 각자 생각하는 성적 행위의 도덕적 정당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성적 관계의 도덕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6 수능특강 55쪽 4번 문항

① 성적 행위는 가치 판단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보수주의 O 자유주의 O)

26 수능완성 118쪽 6번 문항

ㄴ. B: 성적 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 (O) (단, B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공통 입장이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8쪽 18번 문항

⑤ ‘나(중도주의)’와 ‘어떤 사람들(자유주의)’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성의 조건을 제시하므로 성적 관계는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

104-2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모두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자율성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강제로 행해지는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없습니다.

104-3

보수주의에서는 당사자들의 사랑이 성의 정당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보지만, 충분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수주의에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오직 혼인한 부부 간의 사랑만이 성적 관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자유주의에서는 당사자들의 사랑이 성의 정당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에서는 꼭 서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였고(자발성의 원칙) 제3자들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다면(해악 금지의 원칙)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104-8

보부아르는 남성과 여성 모두 실존적 존재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남성과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16쪽 3번 문항

ㄴ. 보부아르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순종은 잘못된 것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실존적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5-2, 105-3

유교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남녀 간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고[夫婦有別]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라는 것이 반드시 고정된 성 역할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면 남편은 반드시 바깥일을 해야 하고 아내는 반드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105-10

프롬에 따르면 참된 사랑은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프롬이 보기에 사랑이란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수능특강 57쪽 2번 문항

프롬 제시문 中 : 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과 같이 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의 모든 표현과 현시(顯示)를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그는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106-7

자유주의라고 해서 성적 호감과 관심이 성행위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성행위의 정당화를 위한 기준으로 ‘자발성의 원칙’과 ‘해악 금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104-3 해설 참고

106-10

프롬에 따르면 사랑이란 한 사람하고만 맺는 관계라기보다는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일종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은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지나치게 의존적인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완성 33쪽 <자료와 친해지기>

프롬 자료 中 :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동포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서적(共稜的)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이다.

107-3

프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할 뿐, 외경의 감정을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23 수능 17번 문항

프롬 제시문 中 : 존경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경이 아닙니다. 어원적으로도 존경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㉔ 프롬 :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외경을 통해 드러내는 존경의 감정이다. (X)

107-6

보부아르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남성과 여성이 각각 실제로 타고나는 본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주입되는 산물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남성성과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16쪽 3번 문항

ㄱ. 보부아르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억압과 학습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108-2

100-9 해설 참고

108-3

유교에서는 부부 관계가 인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유교에 따르면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에 해당합니다.

108-4

유교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불감훼상이 효의 시작, 그리고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입신양명이 효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불감훼상이 효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108-5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모두 성을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봅니다. 103-9 해설 참고

109-9

칸트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22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② 칸트 :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상대방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

109-5

보부아르와 밀 모두 여성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여성의 본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109-9

배려 윤리는 도덕 판단의 성적 차이, 즉 남성의 주된 도덕적 지향성과 여성의 주된 도덕적 지향성을 구분하며, 지금까지의 윤리는 남성의 도덕적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왔으므로 이제는 여성의 도덕적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려 윤리에서는 도덕 판단의 성차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09-10

106-10 해설 참고

110-1, 110-2, 110-3

보수주의에서는 성의 가치 중에서도 생식적 가치(종족 보존의 가치)를, 중도주의에서는 성의 인격적 가치(사랑을 통한 상호 인격 존중의 가치)를, 자유주의에서는

성의 쾌락적 가치를 가장 중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그러하다는 것이지, 각 입장에서 다른 가치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보수주의에서도 성관계를 통한 성적 쾌락의 추구를 긍정합니다. 즉 보수주의라고 해서 성관계가 종족 보존의 측면에서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에서도 물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통한 성적 쾌락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55쪽 4번 문항

③ 성의 생식적 가치보다 성적 자유를 중시해야 하는가? (보수주의 X 자유주의 O)

25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① 보수주의 : 성관계는 종족 보존의 측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X)

110-4, 110-5

103-9 해설 참고